



제3기 김정일 체제의 특징과 2009년 예산평가

조 명 철 통일국제협력팀 선임연구위원 (mjcho@kiep.go.kr, Tel: 3460-1185)
 김 지 연 통일국제협력팀 연구원 (jykim@kiep.go.kr, Tel: 3460-1055)

1. 문제 제기
2. 최고인민회의 주요 내용과 특징
3. 예·결산
4. 향후 북한의 정치체제 및 경제 전망

주요 내용

- ▶ 북한은 4월 9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 회의를 열고 김정일 3기 체제를 공식 출범시킴.
 - 이번 제12기 1차 회의에서 다루어진 주요 내용에는 △국가기관 선거, △2008년 예산 결산 및 2009년 예산수입 계획 발표, △사회주의 헌법 개정 등이 포함됨.
- ▶ 제12기 1차 최고인민회의의 주요 특징은 크게 △국방위 강화 △후계세습 준비 △남북경협 전략 변화 등으로 요약됨.
- ▶ 북한의 2008년 예산수입은 4,588억 북한원(32.8억 달러, 1달러=140원 기준), 지출은 4,511억 북한원(32.2억 달러)인 것으로 발표됨.
 - 북한의 2008년 수입은 당초 계획보다 1.6% 증가한 101.6%를 기록했고, 지출은 계획대비 99.9% 집행됨.
- ▶ 북한의 올해 예산수입은 4,826억 북한원(미화 34.5억 달러, 1달러=140원 적용)인 것으로 추산됨.
 - 세원에 대해 북한의 김완수 재정상은 국가기업이득금 5.8%, 협동단체이득금 3.1%, 고정재산 감가상각금 6.1%, 부동산사용료 6.9%, 사회보험료 수입이 1.6% 증액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함.
 - 지출계획의 경우, 도시경영부문 지출계획이 11.5%로 가장 높게 책정되었고, 인민경제 선행부문 8.7%, 교육부문 8.2%, 보건부문 및 과학기술부문이 각각 8%, 농업부문 6.9%, 체육부문 5.8%, 경공업부문 5.6%, 문화예술부문이 3.2% 증액될 것으로 발표됨.
- 북한은 올해 인민경제비를 전체 예산의 40.7%로 책정하고, 국방비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15.8% 책정함.
- ▶ 제12기 1차 최고인민회의에서 발표된 내용 및 북한 내 일련의 변화들을 종합해 볼 때 북한은 본격적인 후계체제 준비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임.
- ▶ 북한의 후계 권력구조는 집단지도체제가 아닌 김정일의 유일영도체계를 그대로 계승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임.
 - 김정일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가계의 안전을 위해 권력을 나누지 않을 것임.
- ▶ 포스트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과정은 두 단계로 예측되는데 2012년 이전의 본격적인 준비단계를 거쳐 2012년에 공식적으로 후계체제가 출범하는 형태를 띠 것으로 보임.
- ▶ 북한의 예산규모를 볼 때, 올해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됨.
 - 건설업의 성장률이 가장 높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중공업, 경공업, 농업 등 기타 산업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저조한 실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1. 문제 제기

■ 극심한 경제난과 국제적 고립이 지속되고 있는 속에서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 회의를 열고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지도체제를 재구성하였음.

- 이번에 출범한 국가지도체제의 특징은 국방위원회가 군사분야의 최고 지도기관의 지위만이 아니라 정치와 경제, 사회 모든 분야를 지도하는 국가의 최고영도기관의 지위를 획득하였다는 점임.

- 즉,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계기로 북한은 국방을 중심으로 정치와 경제 사회영역이 움직이는 실질적 군부독재국가로 전환되었음.

■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국가영도체계의 출범을 계기로 한 국과 국제사회는 이러한 새로운 지도체제가 현재 북한이 처한 대내외적인 난관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출하고 있음.

- 한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국방위원회 영도체계 수립에 대해 현존하는 북한상황에 대한 북한지도부의 위기의식 표현으로 보고 있음.

- 향후 북한이 군사를 중심으로 국가정책과 대외정책을 펴나갈 경우, 북-미 관계 및 남북관계는 예측하기 힘든 상황으로 전개될 수도 있음.

■ 북한의 새로운 국가지도체제 출범을 계기로 이 체제의 특징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은 우리의 대북정책수립에서 매우 중요함.

- 북한의 새로운 국가지도기관의 조직형태와 인적구성 분석을 통해 향후 북한의 정치행태를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임.

- 또한 새로운 국가지도체제하에서 전개될 북한경제의 향방을 예측해 볼 수도 있을 것임.

■ 본 보고서는 제12기 1차 최고인민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제3기 김정일 체제의 특징을 분석하고, 북한의 2009년 예산을 평가하며, 향후 북한의 정치권력을 전망하고자 함.

2. 최고인민회의의 주요 내용과 특징

■ 북한은 4월 9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 회의를 열고 김정일 3기 체제를 공식 출범시킴.

- 이번 회의에서는 새로 선거된 687명의 대의원 가운데 김정일 등 663명(96.5%)이 참석하였음.

- 대의원 687명의 구성 내용을 지난해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지난 11기에서 33.4%를 차지하던 노동자출신 대의원이 이번 12기에서는 10.9%로 격감하였고, 지난해에는 발표되지 않았던 군인비율은 16.9%로 발표되었으며, 9.3%였던 협동농장원의 비율은 10.1%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 .

■ 이번 제12기 1차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의안에는 △국가지도기관 선거, △2008년 예산 결산 및 2009년 예산수입 계획 발표, △사회주의 헌법 개정 등이 포함됨.

- 첫째, 국방위원회(이하 국방위)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사법부 등 국가지도기관의 인사가 단행되었음.

o 국방위의 경우, 위원장과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2명 및 위원 3명은 유임된 반면, 부위원장 1명과 위원 5명은 신임됨.

▶ 김정일 1, 2기와 마찬가지로 3기에서도 김정일 위원장이 국방위 위원장으로 재추대됨.

표 1. 김정일의 국방위원회 위원장 추대일

구분	일시	계기	근거	비교
1	'93. 4.9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 회의	'92년 헌법	김일성 생존시
2	'98. 9.5	최고인민회의 제 10기 제1차회의	'98년 헌법	추대 5주년
3	'03. 9.3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1차회의		추대 10주년
4	'09. 4.9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 회의	'98년 헌법	추대 16주년

자료: 통일부(2009), 「북, 4.9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 개최 발표」.

▶ 조명록 제1부위원장과 김영춘, 리용무 부위원장이 유임되었고 오극렬 부위원장은 새롭게 임명되었음.

▶ 전병호, 김일철, 백세봉 위원은 유임된 반면, 장성택, 주상성, 우동춘, 주규창, 김정각 위원은 3기에 들어 새롭게 임명됨.

1) 전 인민군 총참모장, 당 작전부장 역임.

그림 1. 김정일 3기 국방위원회 명단

국 방 위 원 회	
위 원 장:	김정일(유입)
제1부위원장:	조명록(유입)
부 위 원 장:	김영춘(유입), 리용무(유입), 오극렬(2월 임명)
위 원:	전병호(유입), 김일철(유입), 백세봉(유입), 장성택(신입), 주상성(신입), 우동측(신입), 주규창(신입), 김정각(신입)

자료: NK조선(2009.4.10), 「북 김정일 3기체제 주요간부 명단」.

○ 최고인민회의의 경우, 유입된 관계자는 모두 22명이고 신입된 관계자는 18명임.

▶ 상임위원회에서는 김영남 위원장과 양형섭, 김영대 부위원장, 김영주 명예부위원장, 최영림 서기장, 류미영, 강영섭, 홍석형, 리용철, 변영립, 태형철 위원은 유입되었고, 심상진, 김양건, 김병팔, 강창욱, 로성실 위원은 신입되었음.

▶ 최고인민회의의 최태복 의장은 유입된 반면, 김완수, 홍선옥 부의장은 신입되었음.

▶ 자격심사위원회의 김국태 의장과 김원홍, 지영춘, 박도춘, 김영호 위원은 신입되었고, 김시학, 우두태 위원은 유입되었음.

▶ 법제위원회에서는 주상성 위원장과 성자립, 김영일 위원이 신입되었고, 리길송, 김병률, 김평해, 박관오 위원이 유입되었음.

▶ 예산위원회에서는 박남기 위원장과 홍서현, 문명학, 조혜숙 위원이 유입되었고, 리철봉, 계영삼, 김명환 위원은 신입되었음.

그림 2. 김정일 3기 최고인민회의 명단

최 고 인 민 회 의 상 임 위 원 회	
위 원 장:	김영남(유입)
부 위 원 장:	양형섭(유입), 김영대(유입)
명예부위원장:	김영주(유입)
서 기 장:	최영림(유입)
위 원:	류미영(유입), 강영섭(유입), 심상진(신입), 홍석형(유입), 김양건(신입), 리용철(유입), 김병팔(신입), 강창욱(신입), 로성실(신입), 변영립(유입), 태형철(유입)
최 고 인 민 회 의	
의 장:	최태복(유입)
부의장:	김완수(신입), 홍선옥(신입)
자 격 심 사 위 원 회	
의 장:	김국태(신입)
부의장:	김원홍(신입), 지영춘(신입), 박도춘(신입), 김시학(유입), 김영호(신입), 우두태(유입)

법 제 위 원 회	
위 원 장:	주상성(신입)
위 원:	리길송(유입), 김병률(유입), 김평해(유입), 성자립(신입), 박관오(유입), 김영일(신입)
예 산 위 원 회	
위 원 장:	박남기(유입)
위 원:	리철봉(신입), 홍서현(유입), 계영삼(신입), 문명학(유입), 김명환(신입), 조혜숙(유입)

자료: NK조선(2009.4.10), 「북 김정일 3기체제 주요간부 명단」.

○ 내각의 경우, 김영일 총리와 곽범기, 태종수, 로두철 부총리는 유입된 반면, 오수용 부총리는 신입되었음.

▶ 내각기구 가운데 국가계획위원장(로두철)과 전자공업상(한광복), 도시경영상(황학원), 올해 신설된 수도건설부장(김응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대표들은 모두 유입되었음.

그림 3. 김정일 3기 내각 명단

내 각					
총 리: 김영일(유입)					
부총리: 곽범기(유입), 태종수(유입), 로두철(유입), 오수용(신입)					
외무상 박의춘(유입)	원유 공업상 김희영(유입)	육해 운상 리동휘(유입)	수산상 박태원(유입)	보건상 최창식(유입)	국가 검열상 김의순(유입)
인민 보안상 주장성(유입)	기계공업상 조병주(유입)	경공업상 리주영(유입)	도시경영상 황학원(신입)	문화상 강영진(유입)	체육 지도원장 박학선(유입)
국가 계획위원장 로두철(신입)	전자공업상 한광복(신입)	무역상 리주영(유입)	국토 환경 보호상 박송출(유입)	체신상 류영섭(유입)	중앙은행 총재 리광곤(유입)
전력 공업상 허택(유입)	건설·건축 공업상 동정호(유입)	농업상 김정식(유입)	국가건설감독 상 배달진(유입)	교육상 김용진(유입)	중앙 통계국장 김창수(유입)
석탄 공업상 김형식(유입)	철도상 전길수(유입)	임업상 김평영(유입)	상업상 김봉걸(유입)	수매 양정상 문영조(유입)	수도건설부장 김응관 (신입·신임)
채취 공업상 강민철(유입)	화학공업상 리무영(유입)	재정상 김완수(유입)	노동상 장영진(유입)	내각사무국 김영희(유입)	국가 과학원장 변영립(유입)
금속 공업상 김태봉(유입)					

자료: NK조선(2009.4.10), 「북 김정일 3기체제 주요간부 명단」.

○ 사법기관의 경우, 중앙검찰소장 리길송과 중앙재판소장 김병률이 모두 유입되었음.

- 둘째, 2008년 예산 결산 및 2009년 예산수입 계획이 발표됨.

○ 북한의 2008년 예산은 4,515억 북한원²⁾인 것으로 추정됨.

▶ 지난해 예산 수입은 당초 계획에 비해 1.6% 증가한 반면, 지출은 99.9% 집행되었음.

○ 북한이 책정한 올해 예산 수입은 작년도 예산수입의 결산금액보다 5.2% 증가한 4,626억 북한원(미화 34.5억 달러)인 것으로 추산됨.

▶ 북한의 김완수 재정상은 올해 예산 수입계획이 지난해보다 5.2%, 지출계획이 7% 증가할 것으로 밝힘.

- 셋째, 북한은 11년 만에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함.

○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이 제12기 1차 회의에서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하였다고 보도함.

○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전해지지 않고 있으나, 1998년 헌법 개정 때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국방위의 지위와 역할 부분이 규정된 것으로 관측됨.

■ 제12기 1차 최고인민회의의 주요 특징은 크게 △국방위 강화, △후계세습 준비, △남북경협 전략 변화 등으로 요약됨.

- 국방위의 위상과 기능, 역할이 대폭 강화되었음.

○ 과거에는 국방위가 군과 군사 분야 전반을 관장하는 최고지도 기관이었다면, 이번에는 군(軍)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최고지도기관으로 위상이 강화됨

○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계기로 북한에서는 국가에 대한 국방위원회 영도체계가 확실하게 자리 잡게 되었음.

표 2. 역대 김정일 체제 출범 비교

구분	9기 5차 (김일성 생존시)	10기 1차 (김정일 1기)	11기 1차 (김정일 2기)	12기 1차 (김정일 3기)
대의원 선거/ 1차 회의일	해당 무/ 1993.4.9	1998.7.26/ 1998.9.5	2003.8.3/ 2003.9.3	2009.3.8/ 2009.4.9
참석자	-	대의원 687명 중 김정일 등 680명	대의원 687명 중 김정일 등 670명	대의원 687명 중 김정일 등 663명
주요 의안	-	사회주의 헌법수정.보충 (국방위원회 관련 강화, 김정일 위원장 추대)	김 위원장 계추대	김 위원장 계추대 사회주의 헌법 수정 보충(미공개)

국 방 위 원 회	위원장: 김정일 제1부위원장: 오진우 부위원장: - 위원: 주원일, 전병호, 김창만, 이하일, 이윤성, 김광진, 김중을	위원장: 김정일 제1부위원장: 조명록 부위원장: 김인철, 리용무 위원: 김영춘, 연형묵, 리을설, 백해림, 전병호, 김철만(총10명)	위원장: 김정일 제1부위원장: 조명록 부위원장: 연형묵, 리용무 위원: 김영춘, 김인철, 최용수, 전병호, 백세봉 (총9명)	위원장: 김정일 제1부위원장: 조명록 부위원장: 김영춘, 리용두, 오극렬 위원: 전병호, 김인철, 백세봉, 장성택, 주상성, 유동주, 유규장, 김정각(총13명)
--------------	---	--	--	---

자료: 연합뉴스(2009. 4.10).

- 북한은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김정일의 갑작스런 유고에 대비하여 후계세습 준비를 시작한 것으로 보임.

○ 장성택을 포함한 김정일 최측근들이 권력체계 전면에서 배치되고 선군체제가 더욱 강화되었으며 헌법을 후계체제에 유리하게 개정함.

표 3. 북한 헌법 개정사

연 도	제 · 개정	비 고
1948.9.8	제헌 (10장 104조)	- 1948.8.25 총선거 (572명 대의원선출) - 1948.9.2 최고인민회의 제1기 1차 회의 개막
1954.4.23	1차 개정	- 지방행정구역 중 면 폐지 읍과 노동자구 신설
1954.10.30	2차 개정	-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임기 3년 → 5년 연장 - 인민위원회를 인민회의 인민위원회로 분리
1955.3.11	3차 개정	-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 권한 일부 수정
1956.11.7	4차 개정	- 선거권, 피선거권 20세 → 18세
1962.10.18	5차 개정	-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선출 기준 3만 명당 1인으로
1972.12.27	사회주의헌법 제정 (11장 149조)	- 최고인민회의의 제5기1차 회의 - 노동당 우월지위 명시 - 주체사상의 헌법 명시 - 국가주석제 도입 및 권한 강화
1992.4.9	1차 대폭 개정 (7장 171조)	- 최고인민회의의 제9기 3차 회의 - 국방관련조항 보강 및 법적통계 강화 - 마르크스, 레닌주의 후퇴 및 김정일 후계체제 강화
1998.9.5	2차 대폭 개정	- 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 폐지, 내각 부활 - 국방위원회 위원장 권한 강화 - 최고인민회의의 상설회의 → 상임위원회로 격상 개정
2009.4.93	3차 개정	미 공개(국방위 관련 추측)

자료: 연합뉴스(2009.4.10).

-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과거 내각의 한 개부서로 있던 민족경제협력위원회를 없애는 조치를 취하였는데, 이는 남북대결 시대의 성격에 맞게 남북경협을 정부가 아닌 당이 직접 맡아 전략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됨.

3. 예·결산

가. 2008년 예산 결산의 내용

- 북한은 제12기 1차 최고인민회의에서 2008년 예산대비 실제 수입 증가율과 지출 집행비율을 발표함.
- 북한의 2008년 수입은 당초 계획보다 1.6% 증가한 101.6%를 기록하였고, 지출은 계획대비 99.9% 집행되었음.
- 결과 북한의 2008년 예산수입은 4,588억 북한원³⁾, 지출은 4,511억 북한원⁴⁾인 것으로 추산됨.
- 북한은 작년 77억 북한원의 재정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표 5. 북한의 예산 및 결산 발표 내용

연도	예산 ¹⁾		결산 ²⁾	
	수입	지출	수입	지출
2005년	115.1%	111.4%	100.8%	104.4%
2006년	107.1%	103.5%	97.5%	99.9%
2007년	105.9%	103.3%	100.2%	101.7%
2008년	104.0%	102.5%	101.6%	99.9%

주: 1) 예산의 수입과 지출은 전년대비 수치임.
 2) 결산의 수입과 지출은 계획대비 수치임.
 자료: 통일부,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 회의결과」, p.2;
 통일연구원(2008),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6차 회의결과분석」, p.11;
 KDI(2007),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5차 회의 주요내용」, p.47.

나. 2009년 국가예산 편성 내용과 특징

- 북한의 김완수 재정상은 2009년 예산계획을 보고하면서 구체적인 액수는 언급하지 않고, 전년대비 증가율과 일부 항목의 구성비만을 발표함.
- 북한은 이번 회의에서 올해 예산수입이 작년도 결산금액보다 5.2% 증액되고, 지출계획은 7% 늘어날 계획을 발표함.
- 결과 북한의 올해 예산수입은 4,826억 북한원⁵⁾인 것으로 추산됨.

3) 32.8억 달러, 1달러=140원 기준
 4) 32.2억 달러, 1달러=140원 기준
 5) 미화 34.5억 달러, 1달러=140원 적용

표 6. 북한의 예산 및 결산 발표 내용

(단위: 억 북한원)

연도	예산		결산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재정수지
2005년	3,885	3,886	3,916	4,057	-141
2006년	4,194	4,199	4,089	4,194	-105
2007년	4,331	4,333	4,339	4,407	-67
2008년	4,513	4,517	4,588	4,511	77
2009년	4,817	4,827	-	-	-

자료: 통일부,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 회의결과」, p.2;
 통일연구원(2008),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 6차 회의결과분석」, p.12;
 연합뉴스(2009.4.10); 북한의 각 연도 예산, 결산 발표 내용.

- 세원에 대해 김 재정상은 국가기업이득금 5.8%, 협동단체이득금 3.1%, 고정재산 감가상각금 6.1%, 부동산사용료 3.6%, 사회보험료 수입이 1.6% 증액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함.
- 고정재산 감가상각금 수입률이 국가기업이득금 수입률보다 더 높게 책정된 것으로 볼 때, 금년에도 국영기업들의 생산활동이 매우 저조할 것으로 예상됨.
- 이 외 협동단체 이득금 및 부동산 사용료, 사회 보험료는 예년 수준보다 다소 증가하거나 비슷한 수준에서 책정됨.

표 7. 북한 예산수입계획의 부문별 증감율

(단위: %)

연도	국가기업 이득금	협동단체 이득금	고정재산 감가상각금	부동산 사용료	사회 보험료	재산판매	기타
2003년	5.0	3.3	-	3.7	6.7	-	-
2004년	16.5	-	-	-	-	-	-
2005년	13.5	8.4	-	-	3.0	-	-
2006년	7.2	23.2	1.8	12.0	141.0	1.7	0.9
2007년	6.4	4.5	9.6	15.4	15.1	-	-
2008년	4.7	0.4	2.6	3.1	1.1	-	-
2009년	5.8	3.1	6.1	3.6	1.6	-	-

주: 2006년부터 부동산사용료, 그 이전에는 토지사용료.
 자료: 통일연구원(2008); 「연합뉴스」(2009.4.10); 북한의 각 연도 예산, 결산 발표 내용.

- 지출의 경우, 도시경영부문 지출이 11.5%로 가장 높게 책정되었고, 인민경제 선행부문 8.7%, 교육부문 8.2%, 보건부문 및 과학기술부문이 각각 8%, 농업부문 6.9%, 체육부문 5.8%, 경공업부문 5.6%, 문화예술부문이 3.2% 증액될 것으로 발표됨.
- 올해의 예산지출에서 가장 큰 변화는 과거 예산지출항목에 없었던 도시경영부문이 지출항목으로 추가되고 이 부분에 대한 지출을 크게 늘어났다는 점임.
- 북한은 내각에 수도건설사업부를 신설함으로써 평양시에 대한

대규모 건설과 도시 미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보임.

- 한편, 4대 선행부문의 지출계획은 작년의 지출증가율에 비해 훨씬 낮은 8.7% 수준으로 발표됨.
- 이 외, 전년에 발표되지 않았던 체육, 경공업, 문화예술 부문이 각각 5.8%, 5.6%, 3.2%로 발표되었고, 교육부문이 전년 대비 4.0%, 보건부문이 2.1%, 과학기술 부문이 전년 대비 1.9% 증액될 것으로 발표됨.

2007년	-	-	15.7
2008년	-	-	15.8
2009년	40.7	-	15.8

자료: 통일연구원(2008),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6차 회의결과분석」, p.12.

4. 향후 북한의 정치체제 및 경제 전망

가. 정치체제 전망

■ 첫째, 제12기 1차 최고인민회의에서 발표된 내용 및 북한 내 일련의 변화들을 종합해 볼 때 북한에서는 포스트 김정일 체제의 수립을 위한 준비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됨.

-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국가영도체계수립과 지도 기관 인사단행, 헌법 개정 등 일련의 변화를 살펴볼 때, 북한은 포스트 김정일 체제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보임.

■ 둘째, 포스트 김정일 체제의 형태는 유일영도체계와 집단지도 체제로 구분될 수 있으나, 현재의 김정일 유일영도체계가 계승될 가능성이 가장 높음.

- 김정일 위원장은 자신의 권력뿐만 아니라 국가의 유일영도 체계도 함께 계승하게 함으로써 자신뿐만 아니라 후계자와 가계의 안전을 도모하려 할 것임.

- ‘백두산 줄기’ 또는 ‘만경대 가문’ 소속 이외의 다른 사람이 북한의 새로운 최고지도자로 임명되거나 집단지도체제로 갈 경우, 가계(家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십 년간 확립, 유지해온 김일성-김정일의 가계통치 문화 이념도 붕괴될 수 있음.

■ 셋째, 포스트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의 절차와 방법은 포스트 김일성 후계체제 구축절차 및 방법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됨.

- 우선 2012년 이전에는 포스트 김정일 후계체제의 구축을 위한 준비단계가 될 것으로 전망됨.

- 이 단계에서 북한은 △세습체계 구축을 위한 사상 이론적 틀을 개발·전파하고 △헌법과 국가관리 기구체계의 개정을 통해 후계자에게 권력을 부분적으로 집중시키며 △후계자의 업적을 만들기 위한 대중운동을 전개할 뿐만 아니라 △후계자가 활동

표 8. 북한 예산지출계획의 부문별 증가율

(단위: %)

구분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인민경제사업비	농업	21.3	-	29.1	12.2	8.5	5.5	6.9
	경공업	12.4	-	-	-	16.8	-	5.6
	4대 선행부문	전력:12.8 석탄:30.0	-	-	9.6	11.9	49.8	8.7
	과학기술	15.7	60.0	14.7	3.1	60.3	6.1	8.0
	건설/도시경영	18.5	-	-	-	-	-	11.5
인민적시책비	교육	15.3	9.5	10.3	3.0	7.0	4.2	8.2
	보건	13.1	5.9			9.8	5.9	8.0
	사회보험보장	-	-			9.4	1.7	-
	문화예술	4.4	-	-	-	-	3.2	
	체육	6.6	-	-	-	-	5.8	
	추가시책	-	8.1	-	-	-	-	

자료: 통일연구원(2008); 『연합뉴스』(2009.4.10); 북한의 각 연도 예산, 결산 발표 내용

■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인민경제비와 국방비의 구성비가 발표되었음.

- 북한은 인민경제비를 전체 예산의 40.7%로 책정하고, 국방비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15.8% 책정함.

- 이를 북한원으로 환산하면 인민경제비 예산은 1,964.2억원⁶⁾, 국방비 예산은 762억 5,000만원⁷⁾인 것으로 추산됨.

표 9. 북한의 결산지출 항목별 구성비

(단위: %)

연도	인민경제비	인민적시책비	국방비
2003년	-	40.5	15.7
2004년	41.3	40.8	15.6
2005년	41.3	-	15.9
2006년	40.8	40.7	16.0

6) 14억 달러, 1달러=140원 기준.

7) 5억 4,500만 달러, 1달러=140원 기준.

- 할 정치무대를 만들고 여기에 권력자들을 포진시켜 보좌하도록 할 것임.
 - 이 시기에 북한은 비공식적으로 후계자를 추대하는 조치를 취하고 적극적으로 후계자 수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임.
 - 향후 후계자의 정치활동무대는 당으로 예상되며, 국방위원회가 힘으로 이를 보좌할 것으로 보임.
 - 한편, 북한은 2012년에 김정일 후계체제를 공식화 할 것으로 보임.
 - 2012년은 북한이 강성대국 완성의 해로 선포하였고 김일성과 김정일의 생일이 100회, 70회가 되는 해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고 있음.
 - 2012년에 북한은 당 대회나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여 공식적으로 후계자를 발표하고 지명된 후계자를 국가권력기구의 최고 수위에 진입시킬 것으로 보임.
 - 그러나 후계자의 승계 시기는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상태와 연동되어있기 때문에 2012년 이전이라도 가능해 질 수 있음.
- 나. 경제 전망
- 북한의 예산규모를 볼 때, 올해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됨.
 - 북한은 경제난으로 인해 대폭적인 재정수입 증액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 국제사회로의 북한에 대한 지원규모도 △북한의 미사일 개발, △남북관계의 악화, △북미관계 미개선 등의 원인으로 인해 전년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북-중 수교 60주년을 맞는 2009년도 북한경제의 향방은 중국의 대북지원 수준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임.
 - 2009년도 북한의 산업부문별 전망을 보면, 건설부문은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실적이 예상되는 반면 농업, 경공업 등 기타 산업분야의 성장은 작년 수준과 비슷할 것으로 보임.
 - 북한은 올해 수도건설부를 신설하고 도시경영 부문에 대한 지출비중(11.5%)을 전체 예산에서 가장 높게 책정함.
 - 북한의 기후조건과 국제사회로부터의 비료지원량이 작년과 비슷하게 유지된다면, 올해의 곡물생산량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됨.
 - 4대 선형 부문과 경공업 부문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음을 고려해 볼 때, 북한의 산업가동률은 올해에도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KIEP**